

9개월 구금 끝 석방된 김명일 목사 “하나님은 드라마틱”

한길교회와의 특별한 인연
100교회 개척, 박해로 이어져
'범죄 확정'이라며 기소 취소
수감된 동역자 위한 기도 요청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9개월여 동안 구금됐던 시온교회 김명일(56·중국명 진밍르) 목사가 지난 7월 3일 석방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김 목사는 8월 2일 LA 한길교회(고광선 목사) 주일 1·2부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서 중국에서의 구금 생활과 석방 과정, 미국 귀환 후의 소회 등을 전했다. 특히 그는 중국 교회와 수감 중인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온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목사와 한길교회의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목회하던 김 목사는 풀러신학교 박사과정 유학을 위해 LA를 찾았다. 그는 한구삼 목사가 시무하던 세계로교회(현 한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며 교회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헤브론교회와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9개월여 동안 구금됐던 시온교회 김명일(56·중국명 진밍르) 목사가 한길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했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한길교회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 기독일보

세계로교회가 통합하면서 한길교회가 됐고, 김 목사는 2007년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교회를 섬겼다.

김 목사는 “미국 생활 초기 자동차가 없어 마켓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 한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를 도왔다”며 “한 성도는 자

동차를 선물했고,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훈련과 파송에도 함께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며 한길교회를 “모교회처럼 느껴지는 곳”이라

고 표현했다.

그는 시온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확장이 어떻게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2007년 중국으로 돌아가 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시온교회를 개척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국 당국의 압박도 거세졌다. 2018년 베이징시 정부는 천 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교회를 강제 폐쇄했고, 예배당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다. 교회는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교회와 정부는 대치상태에 이르렀다.

교회 폐쇄 이후 성도들은 공원 등에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어갔으며, 2019년에는 여러 지역의 작은 셀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 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역의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중국 각지의 크리스천들이 시온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첫 주 300명에서 시작해 수천 명으로 참여자가 늘어났다.

“첫 주에 300명이 접속했고, 둘째 주에 500명, 1천 명, 3천 명, Zoom이 공급하는 가장 많은 인원 수 5천 명까지 늘어났다. 중국 교회가 1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 밖은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하여 중국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스틸 대사, 부임 첫날 영락교회 방문 “한미동맹, 더욱 굳건히”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를 찾아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 교회를 다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교회에 도착해 본당에서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는 “(스틸 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하는 첫 날,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 교회를 찾으셨다고 한다”며 스틸 대사가 기도 후 교회에



마련된 환경직목사기념관도 둘러봤다고 한다.

스틸 대사는 교회 방명록에 “한

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여기 있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I'm very

happy to start my new journey in Korea with a prayer. What a blessed person I'm here)”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영락교회 담임인 김운성 목사는 다른 일정으로 직접 스틸 대사를 만나지 못해, 대신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 목사는 이 메시지에서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을 위해 애써 달라고 전했다고 한다.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 故 환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

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틸 대사를 두고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부모를 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계 여성으로서 미 연방 하원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한파’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담 환영

NEWSTARS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law.com

■ 상법/부동산법 ■ банкротство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네이버스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법원의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행가업의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심볼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루아흐 콘서트 ‘숨 · 바람 · 성령’의 바람, LA를 채우다

문화선교 단체 러빙위십(대표 조셉 리 목사) 주최 ‘루아흐’(RUACH) 콘서트가 8월 1일(토)와 2일(토) 오후 6시 30분에 LA 다운타운 노보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틀간 노보 극장 1,560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할머니·할아버지 세대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가족과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색소폰 연주가 도널드 헤이즈(Donald Hayes)의 ‘Come dance with me’ 연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Jesus Loves you,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Prayer를 연주했다.

주영훈 집사가 깜짝 등장해 콘서트의 의미에 대해 나눴다. 그는 콘서트 제목 ‘RUACH’는 창세기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숨, 바람, 성령’을 뜻한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수 선은 오랜만에 “달리기 잘하는 아저씨”가 아닌, ‘가수’로서 무대에 섰다. 지누선의 히트곡 ‘A-YO’와 ‘말해줘’를 불렀고, 관객들은 오랜만에 보는 선의 가수로서의 모습에 반가움을 표했다.

노래에 이어 선은 결혼 바로 다음 날부터 지속하고 있는 나눔의 삶에 대해 간증하며, 나눔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 후 아내 정혜영 씨에게 하루 만 원씩 모아서 결혼 기념 일마다 서울 청량리의 ‘뽕파’(뽕파 나눔운동본부)라는 곳에 찾아가 기부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나누었다. 그 결과, 결혼 1주년 때, 1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고, 노숙자들을 위해 밥을 퍼주는 봉사를 했다고 회상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의 아내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고백했던 사실을 나누었다.

그렇게 선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며, “40주년 때는 1억 4,610만원이 드려진다”며, 나눔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컴패션을 통해 필리핀, 아이티, 우간다, 인도네시아 아이들 약 400명을 후원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완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살아간다. 가진 게 많아



러빙위십 주최 루아흐(RUACH) 콘서트가 8월 1일(토)와 2일(토) 오후 6시 30분에 LA다운타운 노보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기독일보

서 나누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나누며 살아간다.”고 고백했다.

선의 무대에 이어 8월 1일(토)에는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조셉 리 목사의 토크 콘서트가 주영훈 집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 목사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느낀 점을 나눴다. 8월 2일 콘서트에서는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국윤권 목사(충현선교회), 조셉 리 목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소향의 무대가 이어졌다. 소향은 잘 알려진 가창력과 풍부한 감수성으로, ‘하늘을 달리다’, ‘바람의 노래’, ‘Ready to Fly’, ‘Lean on Me’, ‘꽃비’, ‘Amazing Grace’, ‘신기루’를 부르며 관객과 소통했다. 그는 ‘꽃비’를 부르기에 앞서, 관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결혼생활한 부부가 누군지 물었고, 58년 된 부부가 대답을 한 가운데, 소향은 그 부부를 향해 ‘꽃비’를 불러주었다.

그는 마지막 곡 ‘신기루’를 소개하며, “하나님은 짝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바보처럼 사랑하신다. 사실 그분은 호구시다.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를 위해 모든 출연자와 송정명 목사가 무대에 선 가운데 송 목사가 러빙위십을 소개하며 이번 공연의 의미에 대해 나눴다. 송 목사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청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회를 시작한 게 러빙위십 문화사역의 시작이었다” 소개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역을 돕기 위해 이 공연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 목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소향, 404명의 자녀를 둔 선, 그리고 명 MC 주영훈 집사 등 귀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며 러빙위십의 스태프들과 공연을 함께 섬겨준 이들을 향한 감사를 표했다.

주영훈 집사는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두번째 콘서트가 열린 8월 2일(주일)에는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강준민 목사는, “아름다운 집회를 교포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 몇 개월 동안 준비하셨고 LA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 콘서트를 알렸다”라고 러빙위십의 사역을 소개했다.

그는 선과 소향, 주영훈 집사 등을 향해, 세상을 향해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러빙위십의 문화사역이 발전해 미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주디 한 기자



이번 콘서트에 선과 소향이 참여했다. 선은 400명의 아이들의 후원하게 된 사연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졌기에 나누며 살아간다”고 고백했다. © 기독일보

제5차 OC대각성 새벽기도회 킥오프...8월 19일까지

제5차 21인 차세대 목회자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가 7월 27일(월)~8월 19일(수)까지 감브리선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주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열린다.

지난 7월 29일 새벽기도회 셋째 날에는 김한요 목사(베델교회)가 ‘내가 돌항아리입니다’(요한복음 2:1-

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채우고 하신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당시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되던 항아리였으며,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돌항아리를 “신앙의 형식은 남아 있지만 은혜가 메말라버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해석했다.

이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록이

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벽기도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날인 8월 20일(목) 오전 9시에는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30~50대 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집회에는 김영선 목사(뭇별교회), 이승필 목사(새로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한승현 목

사(예츠글로빌교회), 이상명 총장(CPU), 김종국 총장(예반젤리아대학),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최의정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 이병구 목사(그레이스신학교 부총장), 제임스 리 총장(ITS 신학대학원), 이원준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정기정 목사(샘물교회), 임금빈 목사(LA 주소망교회), 김석훈 목사(미주영광교회), 강정윤 목사(더섬기는교회),

최윤정 부총장(월드미션대학), 전우진 목사(더힐교회), 피세원 목사(더블레신교회), 김지연 목사(월웨이교회),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새벽기도회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OC장로협의회,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조셉 리 기자

2025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한인 사회 최초 베토벤 ‘장엄미사’ 무대에 오른다



8월 8일(토) 오후 7시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매년 여름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다민족 음악단체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가 올해 제1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8일 오후 7시 LA 다운타운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 ‘우정과 화합(Friendship & Harmony)’을 개최한다.

LAKMA는 지난 15년 동안 다

양한 문화와 언어, 배경을 가진 음악인들과 함께 다민족 음악단체로 성장했다.

그동안 대만, 유대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커뮤니티와 음악을 통해 우정과 화합을 이루어 왔으며, 올해는 필리핀 커뮤니티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12개국 이상의 다민족 음악인들과 필리핀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Prayers for Peace with LAKMA and Friends’라는 부제 아래,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1부는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

핀란드디아’로 문을 연다. 핀란드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 곡은 웅장한 도입부에 이어 서정적인 ‘핀란드아 찬가(Finlandia Hymn)’로 이어지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서 LA의 필리핀 합창단 ‘필하모니카/탈로’가 필리핀 전통 음율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2부에서는 베토벤이 5년에 걸쳐 작곡했으며, 자신의 최고작으로 평가한 장엄미사(Missa Solemnis)가 연주된다.

이 곡은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1악장은 자비송(Kyrie)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

소서’(Kyrie eleison)가 주요 모티브로 사용된다. 2악장은 ‘대영광송’(Gloria), 3악장은 ‘신앙고백’(Credo), 4악장은 ‘거룩하시도다’(Sanctus), 마지막 5악장은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로 이다.

베토벤은 이 작품을 단순한 종교 음악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교향악적 미사곡으로 완성했으며, 마지막 악장 ‘도나 노비스 파첸(우리에겐 평화를 주소서)’에 평화를 향한 그의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자세한 정보는 라크마 웹사이트(TheLakma.org)에서 얻을 수 있다.

조셉 리 기자

천관웅 목사 초청 찬양집회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웅목사)가 8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천관웅 목사를 초청해 찬양집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천관웅 목사는 뉴저서 레이션워십 워십리더이자 뉴사운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찬양집회 일정은 8월 14일(금) 오후 7시, 15일(토) 아침 6시, 16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이며 특별히 8월 15일(토) 오전 9시에는 찬양예배 세미나가 열린다.

주최 측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올리고 은혜와 회복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세리토스선교교회: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문의: (562)402-2919

미주성시화운동 8월 정기예배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가 8월 정기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주요 사역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8월 5일(수) 오전 10시,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보고 및 토의 순서로 이어졌다.

1부 예배는 김시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최정학 장로의 기도로 예배를 이어갔다.

이어 이요셉 목사(러빙워십 대표)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전략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성시화 사역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도전했다.

참석자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 도시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다.

2부 순서에서는 주요 사역과 현안을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2부 순서에서는 본부의 주요 사역과 현안을 보고하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신임 운영위원으로는 미



미주성시화운동 사역자들이 정기 모임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차세대 목회자 초청 간담회, 다민족 기도회, 성지 순례, 문화사역 협연, 전자신문 재발행 등 논의

주평안교회 박정해 권사가 소개됐다. 또한 김미선 이재환 선교사의 대추농장 방문, 파나마 학생들의 한국 방문, 차세대 목회자 초청 간담회(8월 중, 점심 접대), 다민족 기도회(2026년 9월 13일, 은혜한인교회), 성지순례(미주평안교회 공동 주관), 문화사역을 위한 ALO 협연, 전자신문 재발행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2027년 국제성시화대회는 은혜한인교회에서 2027년 4월 1일(목)부터 4일(주)까지 열

리고, 이어 5일(주)에는 관광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모임을 통해 예배와 진교를 나누는 한편, 다양한 사역 계획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복음화와 다민족 선교, 차세대 리더십 양성 등 성시화운동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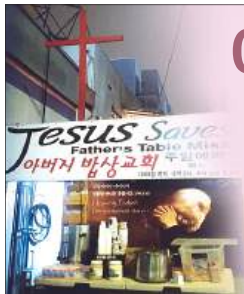
조셉 리 기자

용기장이 선교단 초청 찬양예배

용기장이 찬양선교단 초청 찬양예배가 오는 8월 9일(주일) 오전 11시 LA 베이직교회(이선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용기장이 찬양선교단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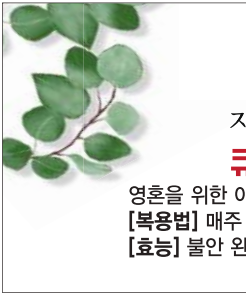
예배와 집회, 교회 순회, 국내외 선교 사역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한 은혜와 회복을 전해 왔다. LA 베이직 교회: 3400 W Olympic Blvd., LA, CA 90019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북가주 실로암 로스모어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북가주 월넛크릭(Walnut Creek) 로스모어(Rossmoor) 시니어타운에 위치한 실로암 로스모어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주로 은퇴한 한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2 제출 서류	3 제출 안내	4 기타 사항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 - 목회 소명이 분명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인격적·영적 자질을 갖춘 분 - 장·노년 교인들과의 목회 및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원활한 분 -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소명, 학업, 사역 경험, 가족 소개, 신앙 간증 등 / Letter Size 3장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영상 2편 (영상 파일 또는 온라인 링크) - 목회자 추천서 1부	- 접수 마감 2026년 10월 30일 (미서부 기준) - 제출처 실로암 로스모어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이메일 danhbkimm@gmail.com	- 제출된 서류는 청빙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사실과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교 표절이 확인될 경우, 청빙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빙과 관련된 문의는 위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주 실로암 로스모어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TOP7

미스트롯4

◎ 센터메디컬그룹

많은 관심과 참여로
티켓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켓은 소진되었지만 티켓이 취소가 발생한 경우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공연일시 8월 22일 (토)

오후 2시 & 6시 30분
총 2회 공연



공연장소 Wilshire Ebell
Theatre

440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바쁘신 가운데서도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함께하는 미스트롯 4 TOP 7의 감동 무대,
공연 당일날 뵙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 9:00 AM ~ 5:00 PM

이슬람, 배제보다 선교적 책임 관점에서 접근 해야

2026년 학술지 《개혁논총》 제 76권에 총신대학교 선교신학 유해석 조교수의 논문 「16세기 유럽 위기 담론과 마르틴 루터의 이슬람 이해」가 최근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마르틴 루터의 이슬람 인식을 당대 유럽 사회의 위기 담론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유해석 교수는 논문의 서론에서 “본 연구는 루터의 이슬람 이해를 단순한 반이슬람 논쟁이나 정치적 대응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스만 제국의 팽창 속에서 형성된 위기 담론을 종교개혁 신학의 틀 안에서 재구성한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고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유 교수는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16세기 유럽은 정치적 질서의 변화와 종교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전환기였다”며 “특히 오스만 제국의 지속적인 서진은 유럽 사회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세계 인식과 신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위기 담론에 대해 유 교수는 “16세기 유



유해석 교수

럽에서 형성된 위기 담론은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팽창과 기독교 세계 내부의 종교적 긴장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논문 에 따르면 이 담론의 구조적 특징은 내부 문제와 외부 위협의 결합에 있다. 유 교수는 “외부의 압박은 내부의 타락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고, 내부의 문제는 외부 위협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이해됐다”며 “위기 담론은 ‘공포-심판-개혁 요구’라는 연속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역사적 사건

을 신학적 변화의 계기로 전환시켰다”고 부연했다.

해당 연구는 루터의 이슬람 인식이 단일한 관점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루터의 이슬람 이해는 특정 시점에 확정된 관점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이슬람에 대한 정보 획득 조건, 그리고 당대의 위기 인식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밝혔다.

당시의 정보 환경에 대해 유 교수

는 “초기에는 꾸란 전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슬람을 평가하였다”며 “이러한 조건은 그의 이슬람 이해가 경험적 정보보다는 간접적 자료에 의존하여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했다.

유 교수는 루터가 이슬람을 종교개혁의 논쟁 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이슬람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보다 교황권과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기술했다. 루터는 위기 담론을 내면화하여 외부의 적을 대하기 전 내부의 반성을 먼저 요구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루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1542년을 전후하여 루터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생긴 점도 논문은 다루고 있다. 유 교수는 “1542년 이후 루터의 이슬람 이해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한다”며 “루터의 이슬람 비판은 도덕적·사회적 평가의 차원에서 교리적 대립의 형태로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꾸란을 직접 연구한 이후 루터의 입장에 대해 유 교수는 “예수를 피조물로 이해하는 이슬람의 교리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논문에서 루터의 역사 해석 방식에 관해 “그는 이슬람의 확장을 정치적 사건이나 군사적 충돌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서술했다.

전쟁과 세속 권력의 이해와 관련해서도 유 교수는 “루터는 이슬람과의 전쟁에 앞서 기독교 공동체 내부의 영적 상태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고 보았다”고 기술했다. 더불어 유 교수는 루터가 ‘두 왕국론’에 기초하여 “공동체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무력 사용을 정당한 세속 정치권력의 기능으로 이해했다”고 분석했다.

유해석 교수는 논문의 결론부에서 본 연구 결과를 현대 사회에 적용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은 종교적·문화적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매니 파퀴아오 “인생 짧아… 구체적 영혼 구원 목표 세워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적인 복싱 전설에서 기독교 전도사로 변신한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가 아시아 기독교 청년 리더들을 향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선교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7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퀴아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한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Arise Asia 2026 Congress)’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50여 개국에서 참석한

약 4천 명의 기독교 청년 리더들에게 자신의 과거 삶과 회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하며 일상 속에서 타인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8계급 세계 복싱 챔피언이자 필리핀 상하원 의원을 지낸 파퀴아오는 최근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협의회(PCEC)로부터 국제 전도사로 공식 임명됐다.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바탕으로 ‘기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이

번 기독교 선교 대회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적극적인 영혼 구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파퀴아오 강연의 핵심은 신앙적 의도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에 명시된 지상명령을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막연한 개념으로 남겨두지 말고 개인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일 년 동안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단 두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년에는 다섯 명으로 목표를 늘려가는 방식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현재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밝혔다. 파퀴아오는 청년 리더들 역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독교 선교 실천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특히 그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인간 삶의 유한성에 빗대

어 설명했다. 파퀴아오는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로 묘사하며 이처럼 짧은 일생 동안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가 기독교인으로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역설했다.

파퀴아오는 많은 기독교인이 직면하는 영적 장애물인 교만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신자가 스스로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안일함이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결국 성경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신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

이 영적 퇴보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기독교계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성경 암송과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영적 훈련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파퀴아오는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육체적인 힘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으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내면을 강건하게 다져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반부에서 파퀴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겸손 대신 교만이 커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에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된다고 경고했다.

최승연 기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에서 매니 파퀴아오가 발언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호,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 행 인 :

이인규

■ 이 사 장 :

폴 킴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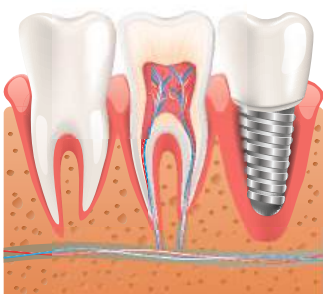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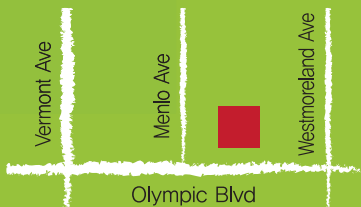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형식을 깨고 ‘거듭남(Born Again)’의 본질이 중요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구봉주 목사가 품은 목회의 유일무이한 뼈대는 ‘거듭남’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목사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깊은 밤의 정적보다 더 짙은 고요가 예배당을 감싼다. 모든 조명이 숨을 죽인 회중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그 자체다. 무대 위 성가대는 이미 약속된 자리를 지킨 채 미세한 숨소리마저 삼키고 있고, 회중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임재만을 기다린다.

찰나의 순간, 조명이 어둠을 열고 무대 위를 비춘다. 장엄한 입례송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익숙했던 성가는 현대적인 호흡과 감각으로 옷을 갈아입고 회중의 심장 깊은 곳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구봉주 목사는 “하이그라운드(Higher Ground) 예배는 사람들이 만든 형식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예배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예배에는 오랜 세월 교회 예배의 문법처럼 여겨졌던 사도신경이나 장로의 대표 기도가 생략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면, 예배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깊이 경배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봉주 목사의 고백처럼, 하이어그라운드의 시간표는 사람들이 만들어 둔 스케줄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호흡에 맞춰 유연하게 흘러간다.

‘거듭남’이라는 하나의 씨앗이 역동적인 예배의 심장부에는 구 목사가 품은 목회의 유일무이한 뼈대, 곧 ‘거듭남(Born Again)’의 철학이 깊게 새겨 있다. 23살 유학 시절, 지성의 언저리에서 맞닥뜨린 강렬한 성령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있던 ‘종교 생활’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맞본 것이다.

이 치열한 영적 체험은 오늘날 감사한인교회를 지탱하는 구 목사의 견고한 세 가지 사역 축을 구축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축은 40대 초중반의 남성 목사가 행정과 말씀을 우직하게 책임지고, 5060대의 세련된 여성 전도사가 성도들의 일상과 대소사를 세밀하게 어루만지는 ‘교구 파트너십’이다.

“남성 목회자는 행정이나 설교, 교육에는 강점이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사역자의 연령대를 다르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보완해 보자는 시도죠.”

두 번째 축은 매주 수요일 아침, 80여 명의 성도가 눈물과 기도로 제단을 쌓는 ‘중보기도 사역’이다.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예배

를 보조하는 소규모 모임인 것과 달리, 감사한인교회는 이를 독립된 전문 사역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별도의 중보기도 전담 사역자를 두고 국가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한 야외 기도 모임이 기점이 됐다.

마지막 축은 현대인의 빠른 삶의 호흡에 발맞춰 8주에서 10주 동안 신앙의 본질을 강렬하게 타격하는 ‘단기 주제별 훈련’이다. 지루하고 긴 과정 대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려는 구봉주 목사의 핵심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주창장 기적이 만든 젊은 리더십

구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발탁된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다. 2011년 청년 담당 목사로 부임한 그는 묵묵히 사역에 전념했다. 당시 원로목사는 후임자를 두고 고심하던 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라”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주말, 사품이 불어오던 ‘주창장’에서 찾아왔다. 주창 봉사를 하던 한 성도와 새가족 사이의 마찰이 빚어졌고, 이일로 피로에 지친 주창 봉사팀들에게 안식년이 주어졌다. 김영길 원로목사는 청년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청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구 목사는 기도로 준비한 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회 수련회 마지막 날 청년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청년부만을 위한 청년부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후 봉사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정확히 10명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 이 순종의 모습은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압도적인 신임

을 얻는 토대가 됐다.

영적 DNA를 이어가는 것이 답

구 목사는 전임 목회자가 물려준 ‘알파코스’와 ‘프레스티아스’ 같은 교회의 소중한 영적 유산을 허물지 않고 오히려 계승해 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김영길 원로목사가 도입해 30년 넘게 이어온 두 프로그램은 담임목사 취임 초기 대부분의 성도가 이미 과정을 수료하고 쇠퇴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거기에 취임 후 2년이 채 안 돼 찾아온 팬데믹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구 목사는 “30~40년 된 교회의 영적인 DNA를 함부로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목회자가 오히려 교회의 오랜 역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묵직한 소신을 내세워 프로그램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최근 진행된 차수에서 알파코스는 92명, 프레스티아스는 약 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과거의 활기를 되찾았다.

구 목사는 프로그램들을 자신의 목회 철학인 ‘거듭남’과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 알파코스의 경우 수련회 중 진행되는 기도회를 통해 수십 년간 해결 못 한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세상의 편리한 시스템에 길들여진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기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원시적이지만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외친다. 거친 물살을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의 연어처럼, 감사한인교회는 구봉주 목사의 리더십과 함께 영적 본질을 향한 묵묵하고도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정호 선임기자

AI 시대, 하나님 없는 편리함을 경계해야

구봉주 목사는 AI 기술과 고도화된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구 목사는 성도들이 세상의 편리함에 안주하는 ‘영적 좀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시적이고 전투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시계보다 가치 있는 것이 태엽을 감는 톨렉스 시계인 것처럼, 신앙도 편리한 방식이 아닌 본질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고난이 닦았을 때 편리한 시스템을 찾기보다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원을 찾는 ‘아날로그적 행위’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잘 믿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보다 직접적이고 전투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목사는 “AI가 감정까지 학습하고 인간의 우울증이나 필요를 즉각 해결해 주는 시대에, 하나님 ‘차선책’으로 밀려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봉주 목사는 “세상의 고도화된 기술에 맞서 오히려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불편하더라도 무릎으로 승부하는 원시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봉주 목사는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탈북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공부했다. 현재 유니티미션에서 이사장으로, 미주복음방송과 미주 한인 기독교 포털 사이트 KCM USA 등에서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allmerits.com
- Office : 323-433-4000
- Fax : 888-870-0802
- 6281 Beach Blvd, Ste 116, Buena Park, CA 90621

아메리츠 파이낸셜
ALLMERITS FINANCIAL
Your Partner in Financial Empowerment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파키스탄 법원, 13세 기독교 소녀 납치범에 친권 부여 논란



엠버 나딤의 부모인 나딤 마시(오른쪽)와 그의 아내 나디아 나딤의 모습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screenshot from video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법원이 13세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조혼을 강요한 무슬림 남성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7월 29일 보도했다.

현지 인권 옹호 단체 보이스 포 저스티스 소속 조셉 얀센 위원장은 지난 25일 파이살라바드 지방법원이 피해 소녀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나 소하일 판사는 미성년자인 엠버 나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피의자 모신 리아카트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진술 직후 지난달 26일부터 구속 수감 중이던 피의자의 보석을 전격 허가했다.

정부 측 검사인 무함마드 안와르 나즈가 사건 기록을 전면 제출하며 보석 기각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엠버는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뒤로하고 피의자 측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엠버는 지난달 27일 치안판사 심문 당시 피의자 가족들의 강압에 못 이겨 자신을 성인이라고 거짓 진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피의자 측은 소녀의 출생 시기가 2008년 6월로 기재된 개종 및 혼인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소녀의 부모가 2012년에 결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치안판사는 나이 감정을 위한 건강 검진을 명령하고 소녀를 정부 임시 보호소에 머물게 했지만 지방법

원은 이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얀센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엠버에게 이슬람을 포기할 경우 배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은 아동 보호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 나디아 나딤은 영상을 통해 아이를 빼앗긴 비통함을 호소하며 무사히 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CDI는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 연방헌법 법원이 또 다른 13세 기독교 소녀 마리아 사바즈의 이슬람식 강제 혼인을 합법으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와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측 법률 대리인인 무함마드 사키브 질라니 변호사는 법원이 마리아가 법적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는 공식 출생 기록을 묵살하고 아동혼인금지법을 위반한 결혼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치명적인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연방 사리아 법원이 이슬람에서의 혼인을 단순한 생물학적 성숙이 아닌 지적 정서적 발달을 포함한 정신적 성숙이 동반되어야 하는 법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무슬림 남성에 의한 강제 조혼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연 기자

수단 반군, 기독교 목사 및 일가족 납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장 반군 세력이 기독교 목사와 일가족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7월 30일 보도했다. 수단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표적 테러를 잇달아 자행하면서 현지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단 남코르도판주 헤이반 타운에서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SPLA-N) 이탈 무장 정파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수단 그리스도 교회(SCOC) 소속 야곱 이브라힘 티아 목사의 자택에 난입해 목사를 납치했다. 현장에서는 야곱 목사의 17세와 20세 된 두 아들과 15세 조카도 함께 납치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던 가톨릭 신부 파디 이브라힘 티아의 형제인 다니엘 이브라힘 역시 무장 단체에 끌려갔다.

파디 신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야곱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건물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밝혔다. 현지 관계자들은 납치범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지역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기독교계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적 테러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대상 납치 사건 중 금전을 요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파디 신부는 최근 이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납치 사실이 접수됐으나 아직 뚜렷한 수사 진전은 없는 상태다. 피해자 가족들은 납치된 야곱 목사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 이탈 세력의 기독교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곱 목사 납치 이틀 뒤인 25일에는 헤이

반 지역 다비 행정 구역에서 수단 성공회 소속 아델 이드리스 종굴 목사가 동일한 무장 단체에 의해 사살됐다. 앞서 23일에도 헤이반 타운에서 신원 미상의 기독교인 다수가 사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됐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남코르도판주 카우다의 한 성당에서 가톨릭 신부와 경비원이 목숨을 잃었다.

CDI는 남코르도판주 누바 산맥 일대는 오랜 기간 수단 중앙 정부에 맞서온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의 주요 거점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발발한 수단 내전 초기에는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가 정부군(SAF)에 대항해 신속지원군(RSF)과 연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반발한 이탈 무장 파벌들이 형성되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대규모 피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수단 내전을 주도하는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모두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군벌이다. 이들은 피난길에 오른 기독교인들에게 적대 세력을 지원한다는 혐의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수단은 인구의 9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CHR)는 수단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수만 명이 사망하고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수단은 2019년 오마르 알 바쉬르 전 대통령의 이슬람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과도 정부 치하에서 배교법을 폐지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군부 쿠데타로 민주화 전환이 무산되면서, 이슬람 율법 강화와 맞물려 현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국가적 차원의 종교 박해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에예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예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09:00 오전 8시 (화-토) - 오전 6:0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일 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 1부: 8:3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주일예배 2부: 11:00 am 새벽예배: 화-토 (6:00 am)
교육부사: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온리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서클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잔치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동방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어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참람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국인 54%,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지지율 감소세



©Unsplash

미국인들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동성결혼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점차 하락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559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2%는 합법화에 반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3%포인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통해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이후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한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서 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은 과반을 차지했고 반대보다도 크게 높았지만, 다른 최근 조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공공종교연구소(PRR)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5%가 동성결

혼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최고치인 69%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지난 6월 발표된 갤럽(Gallup)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32%는 반대했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1%보다 하락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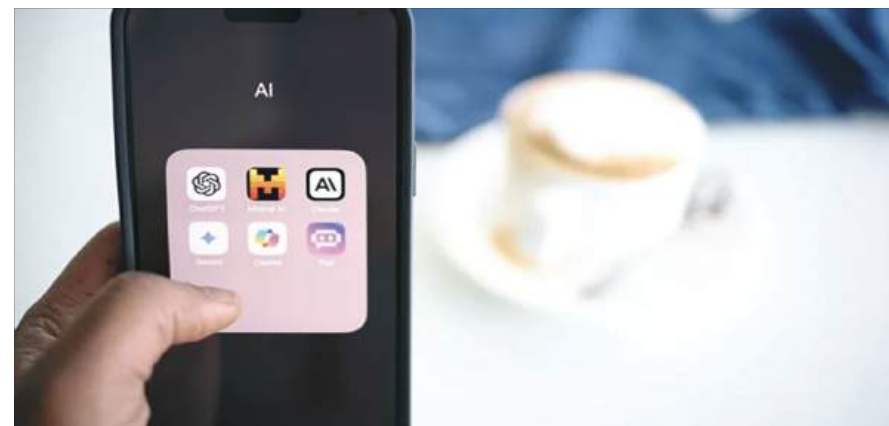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기고문에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당시에는 헌신적인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는 것뿐이며 다른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퍼킨스는 대도시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노출과 성적 표현, 기업과 대학, 프로 스포츠 단체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도록 압박하는 문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 없이 태어나도록 하는 상업적 대리모 산업의 확대 등을 동성결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의료시술과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과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정책 역시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美 실천적 기독교인 AI 활용 빈도 높아



©Unsplash/Solen Feyissa

미국의 실천적 기독교인(practising Christians)이 일반 성인보다 개인 생활과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목회자들의 AI 활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양극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Barna)가 미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5%는 개인 생활에서 AI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16%는 ‘자주’, 29%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천적 기독교인의 경우 AI 활용 빈도가 더욱 높았다. 이들 가운데 26%는 개인 생활에서 AI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18%는 ‘자주’, 24%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 442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인 생활에서 AI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5%에 그쳤다.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16%,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34%였다.

업무 목적의 AI 활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실천적 기독교인의 21%가 업무에 AI를 ‘매우 자주’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 미국 성인은 12%, 목회자는 6%에 불과했다.

AI 활용 방식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다

두 60% 이상이 ‘특정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다’고 응답해 가장 보편적인 활용 사례로 나타났다.

다만 실천적 기독교인은 일반 미국 성인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차이는 글쓰기 분야에서 확인됐다. 실천적 기독교인의 40% 이상이 글쓰기와 편집, 번역, 요약 작업에 AI를 활용했다고 답한 반면, 전체 미국 성인의 경우 이 비율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바나의 연구 담당 부사장인 다니엘 코플랜드(Daniel Copeland)는 “AI를 사용하는지 여부만 단순히 묻는다면 평균적인 목회자와 일반 미국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차이는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회자들은 AI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만큼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주변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실천적 기독교인들에게 AI는 더 이상 가끔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고 배우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美 종교자유위원회 英 종교자유 후퇴 우려 제기



애덤 스미스-코너(우)와 그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아 이구누볼레(좌). ©ADF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영국의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국 내 종교자유를 주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발표한 2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영국의 낙태시설 완충구역(buffer zone) 관련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서구 국가들에서도 종교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종교자유를 위협하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최근 경찰이 침묵 가운데 기도했다는 이유로 육군 참전용사이자 물리치료사인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코너는 잉글랜드 본머스의 낙태시설 완충구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 은퇴한 목회자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 등도 완충구역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존스턴 목사는 낙태를 언급하지 않은 야외 설교를 완충구역 내에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스미스-코너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건에 관심을 보인 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영국에서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한 데 감사한다”며 “나는 단지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사건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면 평화롭고 심

지어 침묵 속에서 표현된 신앙까지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또 다른 우려 사례로 거론된 것은 핀란드 기독교 정치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사건이다. 라사넨은 20여 년 전 자신이 집필한 동성결혼 관련 소책자 때문에 최근 핀란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영국 입국 여행 허가도 거부당했다.

스미스-코너와 본-스프루스, 라사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법률 고문 제레미아 이구누볼레(Jeremiah Iggunnubole)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했다.

그는 “파이비 라사넨과 애덤 스미스-코너 사건은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에 대한 헌신을 포기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트윗과 수십 년 전에 발간된 교회 소책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형사 절차를 겪었다”며 “애덤은 낙태시설 밖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애도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올바르게 지적했다. 이는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국가가 언론과 신념, 양심 자체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라는 위원회의 강력한 촉구는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서구 문명의 토대이며, 그 침식을 방지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자유를 옹호하는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도 위원회의 개입을 환영했다.

이미경 기자

“기내서 복음 전했다가” 강제 하차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 전도사가 출발을 기다리던 여객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항공사 승무원들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강제 하차 조치를 당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거주하는 전도사 휘트니 린(Whitney Lynn·40)은 최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 여객기에 탑승한 뒤, 출발이 지연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승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린은 승객들에게 “비행 지연으로 느끼는 답답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그녀가 발언하는 동안 승무원 호출 버튼에서 울리는 알림음도 함께 녹음됐다.

이후 승무원은 린에게 다가와 “승무원들이 당신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짐을 챙겨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일을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이라고 표현하며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린이 항공사 직원들과 하차 조치를 놓고 연쟁을 벌이는 장면도 담겼다. 미러 US(The Mirror US)에 따르면 린은 자신을 안내하던 직원에게 “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승객들에게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은 공항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과 탑승구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그녀가 올린 영상 가운데 하나는 인스타그램에서 약 3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항공사는 “당분간 해당 승객은 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린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크레디트를 받았지만 탑승 금지 조치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변호사와 상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대부분의 항공 여행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승객들은 진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전도 활동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정을 던져주는 일에 비유했다.

실제로 린은 지난달에도 샌디에이고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약 1분 동안 죄와 지옥, 천국, 구속, 예수 그리스도 등을 주제로 설교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헌양기도회(미자역주) 오후 8:30
세백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세백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예배 8:00am / 주일 2부 예배 9:30am (각 교목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11:20am (각 교목부 예배)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한미청년부 1:30pm / 영어대학부 2pm
수요경배오전장 (화) 7:30pm
세백예배 (평일) 5:30am, (토) 6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세백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민음세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세백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미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세백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침예배 오후 7:30 한미 청년부 주일오후 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주일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세백예배(화-금) 세백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세백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세백예배(월-토) 세백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세백예배(화-토) 세백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백예배(화-토) 세백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세백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세백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세백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모집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Water Leaks & Pipe Clogs

Drain & Sewer Cleaning

Pipe Repair & Replacement

Water Heaters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배변은 숙변 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정당료 \$7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ga.com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가을학기 개강 앞뒤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부설 효사랑 시니어 대학(학장 조성우 목사)은 오는 8월 11일(화)부터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가을학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6주간 11월 26일(목)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경과노라마 △난타교실 △라인댄스 △합창교실 △우쿨렐레 & 하모니카 △에어로폰 악기 △플러스펜수채화 △문학교실 △스마트폰 & AI 등으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김영찬 목사는 “시니어 대학의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며 “노년은 인생의 쇠퇴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시니어대학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미디어칼, 메



효사랑 시니어 대학 2026년 가을학기. © 효사랑 시니어 대학

디케어, EBT카드, 간병인 또는 양로호텔에 관해 전문가의 의학 상담을 제공한다.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멕시코 선교 및 양로병원 봉사 사역을 통해 실천하게 된다.

지난 봄학기에는 종강과 동시에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의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청소년 갱생원

을 방문했다. 등록금은 월 100달러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웹페이지: www.hyosarangusa.org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헌신예배가 지난 8월 1일(토) 11시 LA 새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김미경권사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 노영호 목사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예배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새대를 세우는 실천적 사역도 함께 빛났다. CPU 이상명 총장의 사역보고와 이덕화 제4대 증경회장의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 섰다.



제 39차 총회 해외 한인 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 여선교회 연합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는 “이번 헌신예배를 계기로 회원 모두가 초심을 회복하고 선교와 봉

사의 사명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김민선 기자

LA기쁨의교회, 다니엘 뉴먼 교수 은퇴감사예배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다니엘 뉴먼(Daniel Newman) 교수의 은퇴감사예배가 열린다.

뉴먼 교수의 제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직접 준비한 이번 ‘은퇴감사예배’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LA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vd., LA, CA 90010)에서 열린다.

과거 9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다니엘 뉴먼 교수는, 이후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한인 신학생과 사역자들을 지도하며 한인 교계의 신학적 발전과 목회

자양성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다니엘 뉴먼 교수의 명예로운 은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헌신과 사랑에 빛진 제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다니엘 뉴



다니엘 뉴먼 교수.

먼 교수가 직접 은퇴 기념 말씀을 전하게 된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류창식 목사는 “한인 교계를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걸어가실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축복하는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초청의 뜻을 밝혔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을 희망하는 동문 및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위원회 측 이메일로 문의하여 회비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참석 및 문의: worshipleader77@gmail.com 김민선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강준민 칼럼

아직 두드려 보지 않은 문이 남아 있습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이번 주간에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의 짧은 시를 만났습니다. 시의 제목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자살》입니다. “모든 문 가운데 마지막 문. 그러나 아직 모든 문을 두드려 보지는 않았다.” 불과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에는 절망을 넘어 생명을 붙들게 하는 깊은 울림과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보이는 문이 마지막 문처럼 느껴질지라도, 아직 두드려 보지 않은 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받아 보지 못한 도움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눈앞의 한 문이 닫히면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문이 닫혔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새로운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는 삶의 마지막 결론을 너무 서둘러 내리지 말라고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문을 두드리고, 조금 더 살아 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문을 두드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홍해 가운데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속에 감추어진 길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바다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힌 곳도 출구가 됩니다.

인생은 수많은 문을 통과하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명의 문을 엽니다. 배움의 문을 엽니다. 사랑의 문을 엽니다. 일터의 문을 엽니다. 사명의 문을 엽니다. 때로는 실패의 문도 엽니다. 고난의 문도 엽니다. 눈물의 문도 엽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문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습니다. 실패의 문을 지나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눈물의 문을 지나며 기도를 배웠습니다. 상실의 문을 지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마지막 문 앞에 선 것 같은 순간이 찾아

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입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어두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끝이다. 아무 문도 남아 있

아직 남은 문
마지막 문은 아닙니다
닫힌 문 너머
하나님이 여시는 길

지 않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남아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음 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견디는 것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빌드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혼자 머물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우리를 기다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문이십니다. 회복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성경은 닫힌 문이 새로운 문으로 바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돌람 굴은 끝이 아니라 왕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앞의 닫힌 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닫힌 문이 내일도 닫혀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너무 빨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쓰실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열려 보지 않은 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유철 칼럼

인내와 날마다의 영성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4:3)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말씀이 있는 반면,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쿠데타와 왕위 계

승 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서열상 다윗의 장남 격이며 군중들이 지지하는 아도니아는 군신들과 다른 왕자들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는 선포식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결단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 랍쉐마,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왕상3:10)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 가장 많이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마’는 ‘분별력’이란 뜻으로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변화인지 변질이냐 변장인지를 분별하여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아다’라는 말로도 쓰였는데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 능력인 “지혜”는 현장

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원더러 리스트’에 나오는 수용소장 아몬 괴트는 나치 장교로 잔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살인광입니다. 어느 날 닭한 마리가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능력

그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죄수들을 모두 세워 놓고 외칩니다. ‘누가 닭을 훔쳤느냐? 한 사람이 닭을 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못 봤단 말이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분노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즉석에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자 다시 총을 겨누며 범인을 밝히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겁에 질린 한 소년이 우니까 괴트는 묻습니다. ‘네가 훔쳤느냐?’ 소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괴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지 아느냐?’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방

금 통에 맞아 죽은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요.’라고 대답합니다. 소장의 자존심과 심리를 잘 분별하여 광기를 저지한 현장에서의 지혜입니다.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자꾸 오해를 만들고 성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목사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유튜브에서 하는 엉뚱한 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더니 하루 12시간 이상씩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예배는 안 나오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9세기 인도와 이란에서 선교사이자 성경 번역가로 사역했던 헨리 마틴 선교사의 일기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은 내 인생에 없다.”는 말은 많은 사람을 깨우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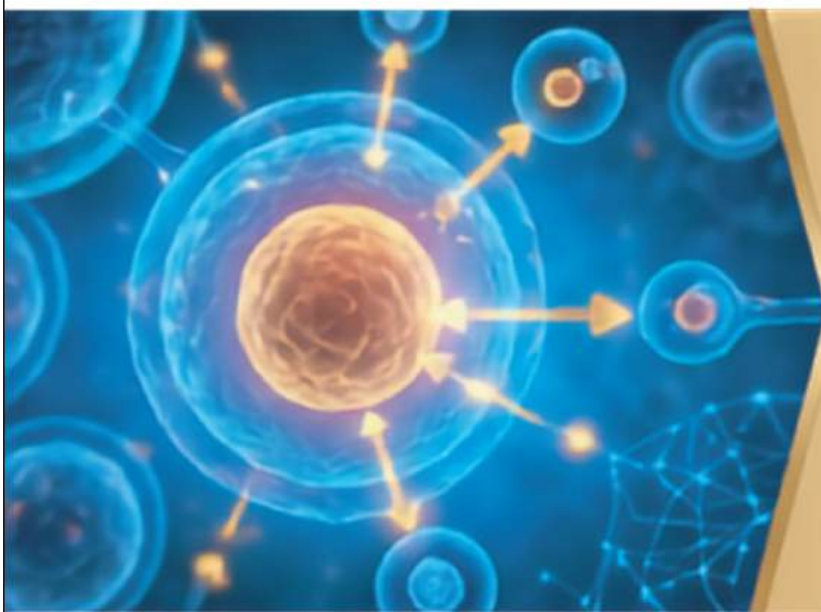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세계 최초 역노화(Reverse Aging) 기술! 1년 안에 10년 이상 젊어지는 놀라운 기술력! 이제 **북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TeloYouth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뉴욕으로 확장!
이제 북미 시장을 함께 개척할 리더와 사업가를 찾습니다.



왜 TeloYouth인가?

세계 최초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젊음 회복 프로그램

- ✓ FTE(부화수정란 추출물) 100년의 역사
- ✓ 100만 명 이상 젊음 회복 프로그램 경험
- ✓ 수천 건의 놀라운 체험 사례와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
- ✓ 12가지 국제 품질 인증
- ✓ 6가지 임상 연구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91% 재구매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혈당 및 혈압 관리
- 콜레스테롤 관리
- 에너지 및 활력 증진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 수면의 질 향상
- 면역력 강화
- 장 건강 개선
- 간 건강 및 신장 건강 관리
- 전립선 건강
- 관절 및 근육 건강
- 근력 및 운동 능력 향상
- 스트레스 관리
- 건강한 체중 관리
- 신진대사 활성화
- 만성 피로 감소
- 삶의 질 향상

6가지 임상 연구

- ✓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 우울감 개선
- ✓ 근력 향상
- ✓ 성기능 만족도 향상
- ✓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 증가
- ✓ 인지기능 향상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기회

AI 혁명에 이어 이제는 **장수혁명 시대**입니다.
건강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대한 시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TeloYouth는 뉴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지금이 북미 시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LA, NY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NY 디모스연회장

LA 가든스윙트호텔

사람을 살리는 사업
건강을 나누는 사업
미래를 만드는 사업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목회자, 사업가, 전문직, 리더, 은퇴자,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Paul Kim
Chief Coach

레이첼 코치

☎ 714-732-8477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com
www.teloyouthkorean.com
☎ 714-851-8035

“생명을 살리는 사업, 장수혁명을 이끄는 비전, 이제 북미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 ‘여기 비행기 안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제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선교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다. 하나님은 순종의 시험을 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

에스더기도운동, 미주통일광장 기도회 공동주최로 ‘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7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강의 “순종이 신앙의 극치이다”를 이끈 송기호 목사(런던 목양교회)는 연착된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했을 때, 깨닫게 된 신앙의 지혜에 대해 나누었다.

“내 평생 가장 힘들게 순종한 적이 있다. 화장실에서도 전도하고 버스, 기차, 전도 안 해본 곳이 없다. 12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비행기 점검 때문에 40분이 연착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못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야기하셨다. ‘여기 비행기 안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순종이 생각났다. 비행기 안에 300명 정도 사람들이 타 있었는데, 전도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3시간 후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천국에 갈 거 같아요, 지옥에 갈 거 같아요?’ 그러자 저쪽에서 욕을 했다.”

“전도하는데 등에 식은 땀이 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300여 명에게 전도지를 다 나눠줬다. 내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3분이 지났을 때 누가 어깨를 짰다. 기장이었다. 너가 영국법을 어겼다. 연설한 것과 전도지를 나눠준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눈감고 계속 기도하는데 또 누가 제 어깨를 짰다. 영국인이 눈이 충혈된 채 서 있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양이 되었으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 영혼 때문에 하게 하신 것이구나.’ 안수기도를 했다. 그 사람이 영영 울자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

“제가 가장 힘들게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나서 깨달았다. 이해 안될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해 안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제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에스더기도운동, 미주통일광장 기도회 공동으로 주최한 ‘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제로 지난주인 7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미국을 거룩하게 세우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한국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은 컨퍼런스 후, 아주사 부흥 120주년을 기념해 유적지 방문, 찬양 전도 집회, 샌디에이고 성경테마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단기 선교에 임했다.

7월 14일(화) 컨퍼런스는 10시 30분 호성기 목사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이준근 박사, 사라 김 사모의 강의와 한기홍 목사의 저녁집회가 이어졌다.

15일(수)에는 백상현 선교사, 호성기 목사, 이상명 총장, 브래드 다쿠스 변호사 등이 메시지를 선포했다. 합심기도회 이후에는 선택강의가 이어졌고, 저녁회에서는 박한수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16일(목)에는 조영길 변호사, 박



‘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마지막 날 송기호 선교사는 “순종이 신앙의 극치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한수 목사, 이순실 집사, 강동안 교수, 이용희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17일(금)에는 김재동 목사, 송기호 목사, 이용희 교수, 이종인 선교사의 강의와 선택 강의에 이어, 박한수 목사가 “기도에만 길이 있다”는 주제로 마지막 집회를 이끌었다. 17일 오전 11시 송기호 목사(런던 목양교회)는 “순종이 신앙의 극치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순종이 신앙의 극치

그는 아브라함, 나아만 장군,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에 순종해 마게도나로 향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와 그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기적에 대해 나누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이해 안 될 때 일어났다. 나안만의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다메섹 땅이 더 깨끗한데 왜 요단강에 몸을 몸을 담그라고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종이 ‘이 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안 될 때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은 내가 뜻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이 성령께서 마게도나로 가라고 하신다. 선교를 가려고 그 나라를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상황이다. 바울은 이해가 안 되어도 방향을 확 돌렸다.”

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신다

고 말했다.

“네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신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 테스트를 한다.”며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순종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신자였을 때,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데, 식당 주인의 착오로 오히려 돈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음성 순종해 돈을 돌려주러 갔던 경험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했다.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이 싸운다. 내 의지와 주 음성이 싸운다. 주의 음성이 이겨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는,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며 2달 전 교회에 온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무슬림의 회심으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진 이야기를 강조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신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주님께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찾는 게 아니다.”

그는, “4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지정해

주셨다. 3천 년 전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소를 찾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스펀전 대학교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작년 8월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한 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다. 총장이 구원과 박육수와 교류하고, 구원과 집회에 가서 축사를 했다.”

그러던 2달 전, 송 목사가 목회하는 런던 목양교회에 한 무슬림이 찾아왔다. 송 목사는 그날 설교에서 ‘거듭남’을 강조했다. 무슬림은 화가 나서 설교 도중 나가버렸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무슬림이 한달 동안 하이에나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마지막 날 꿈에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나 하이에나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보았다. 결국 이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한 헌금으로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이 채워졌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공급을 주신다.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지 못하신다. 순종은 신앙의 극치이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디 한 기자



강의 이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참석자들 ©기독교일보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1a@gmail.com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요나서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림자



요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브라이언 D. 에스테일 | 전의
우 역 | 좋은씨앗 | 236쪽 |
17,000원

요나서를 단순한 교훈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본문으로 읽어내는 책이다

브라이언 에스테일은 요나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속사적 정점에서
드러난 복음의 표적으로
해석한다

책은 요나서를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 나 ‘불순종한
선지자의 회개담’ 으로
축소하는 시각을 넘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심판과 자비 속에 완성된
구원을 보여 준다

브라이언 D. 에스테일(Bryan D. Estelle, 1959-)이 저술한 『요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요나서라는 짧지만 깊은 책을 통해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성경 신학적 진리를 풀어내는 저작이다.

저자는 성경 신학적, 역사적, 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요나서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조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혀낸다. 본서는 단순히 요나서의 해설서나 주석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요나서를 읽을 때 흔히 발생하는 오히려 제한된 해석을 지적한다. 많은 독자들이 요나서를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 회개의 주제로만 축소시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는 요나서가 그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직결된 책임을 강조한다.

즉 요나서의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나 교훈적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예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뚜렷이 드러나며, 저자는 이를 풍부한 주해와 신학적 설명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요나서가 가진 문학적 구조와 상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패턴을 조명한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낸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로 제시된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연결시키셨다. 저자는 이러한 구속사적 연결점을 통해, 요나서를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길임을 강조한다. 요나의 사흘 간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덤 속 사흘, 물고기 뱃속

에서 나온 요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각각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저자는 요나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조명한다. 요나는 불순종과 자기중심성으로 점철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니느웨로 향한 선포와 그들의 회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자는 이 사건이 신약에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예표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퍼져가는 흐름과 긴밀히 연결된다.

저자는 또한 요나서의 문학적 풍자와 대조 구조를 분석한다. 선지자인 요나의 완고함과 불순종, 그리고 이방인들의 겸손한 회개가 극적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요나가 보여주는 실패와 모순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요나서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론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성경의 개별 책을 고립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요나서를 읽을 때도 단순한 교훈적 메시지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하여 읽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 해석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더 초즌(The Chosen). ©ANGEL STUDIOS

중심'이라는 원리를 충실히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서는 9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은 요나서 본문의 사건을 따라가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예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각 장은 요나의 부르심, 도망, 풍랑, 물고기, 니느웨 선포, 회개, 그리고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학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의 논지는 학문적 깊이와 목회적 적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영적 도전과 신앙적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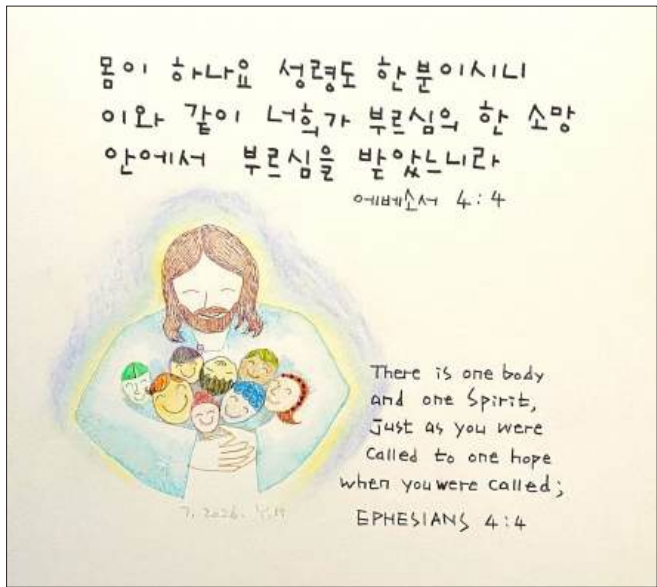
저자는 성경신학적 통찰과 함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분석을 치

밀하게 엮어내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적 유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깊이 있는 자료가 되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요나서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읽게 하는 유익한 안내서가 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단편적 교훈으로만 해석하던 이들에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책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이언 D. 에스테일의 『요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요나서라는 작은 책을 통해 성경 전체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탁월한 저작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싱싱 투근 설렁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굿모닝스페셜

통근설렁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간짜개
좋아질
때까지!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고스페셜
설렁탕 \$10.99
설렁탕, 백미, 감치, 깍두기
10AM ~ 2PM

시니어를 위한 ‘어름철 보양식’
삼계탕 스페셜
\$19.35 Reg. → \$14.99 +tax
7월 1일 ~ 8월 31일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게오르크 플레겔

종교 탄압 피해 이주한 체코 화가, 개신교 미술 성취 드러내다

독일 정물화 투영된 실재의 미학
지역의 기술력과 장인정신 기려
프랑크푸르트 문화 자부심 확인
작품으로 독일 정물화 계보 세워
자연 통해 하나님 섭리 전달 의도
독립 처소, 피조물 존재성 되찾게

게오르크 플레겔(Georg Flegel, 1566-1638)은 1566년 모라비아(Moravia, 현재 체코 동부 지역)의 올로모우츠(Olomouc)에서 태어났다. 당시 올로모우츠는 유럽 무역 요충지이자 주교좌 소재지로, 문화적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와 예술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었다.

플레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격변기였다. 그는 28세이던 1594년경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당시 그 지역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남부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온 개신교 난민들의 주요 안식처였다.

플레겔이 모라비아 출신임에도 네덜란드 공동체에 순조롭게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국적보다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신앙적 정체성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16-17세기 모라비아는 husites(후시타)와 모라비아 형제단 등 개신교 전통이 강했던 곳으로,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모여든 네덜란드 왈롱인들과 플레겔은 남다른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의 예술적 지평은 소박한 식단을 다룬 '빵과 와인이 있는 정물'부터 미세한 생명체를 관찰한 '꽃과 곤충 세밀화', 그리고 시민들의 기물을 다룬 정물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형성되었다.

필자가 2008년 유럽 여행 중 프랑크푸르트 스테틸 미술관에서 관람한 '사물들의 미술

(The Magic of Things)' 전람회는 독일 정물화 발상지로서 프랑크푸르트가 지닌 위상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나아가 이 전시는 개신교 미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역사적 포문을 연 곳이 다름 아닌 프랑크푸르트였다.

프랑크푸르트는 일찍이 1525년부터 가톨릭에 반기를 들었으며, 종교적으로 관대했던 팔츠(Palatinate)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칼뱅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칼뱅주의자들을 단순히 구호 대상이 아닌 '신앙의 동지'로 대우했다. 팔츠의 강력한 개혁교회 옹호 정책은 인접한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와 하나우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일종의 '정치적·종교적 보루' 역할을 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당시 플레겔은 정물화라는 특정 장르에 대해선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그는 당시 이 지역 예술계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다니엘 소로(Daniel Soreau)를 만나며, 정물화가로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1580년경 그가 빈에 머물렀을 때, 루카스 판 발켄보르흐(Lucas van Valckenborch) 1세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다. 플레겔은 발켄보르흐의 작품에 과일, 꽃, 식기류와 같은 사물들을 그려넣는 역할을 맡았다. 혼자서 작품을 완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플레겔은 루카스 판 발켄보르흐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였을 때 동행했으며, 이를 통해 플레겔은 프랑크푸르트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줄 은인을 만났다. 플랑드르 정물화의 전통을 독일 지역에 전파한 다니엘 소로는 플레겔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네덜란드 정물화의 기법을 전수해 주었다. 화가로서의 입문을 이끈 것이 발켄보르흐였다면, 방향을 잡아주고 전문성을 불어



▲게오르크 플레겔, 체리가 있는 정물, 1635.

넣는 것은 다니엘 소로였다. 플레겔의 작품은 네덜란드 '방켓(Bancketjes)' 즉 탁자 정물화 스타일을 따르면서도, 프랑크푸르트 지역 은세공인들이 제작한 도금 은그릇과 유리잔들을 화폭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재질의 대비를 극대화했다.

당시 금속 공예가 발달했던 프랑크푸르트 지역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물들의 정밀한 묘사는 지역 장인들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안트베르펜 스타일의 화려한 정물 전통이 프랑크푸르트의 은세공 기술과 결합되면서, 플레겔의 정물화는 유럽 상업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프랑크푸르트의 문화적 자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술사학자 볼프강 뮐러(Wolfgang J. Müller)는 플레겔의 화면 구성에서 사물들이 서로 겹치거나 뒤섞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엄격히 지키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개별 형태의 고립(Isolierung der Einzel-form)'이라 불렀으며, 이는 이주민이 겪었던 존재론적 소외감의 투영이자 타자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물들의 나열은 조금 은유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엄성을 지닌다는 '가산적(Additive) 질서'의 메타포로 풀이된다.

그는 게오르크 호프나겔(Joris Hoefnagel)의 '아르케티파(Archetypa)' 판화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뱀, 도마뱀, 곤충 등을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아르케티파'는 작은 생명체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증언하려 했던 16세기 말 지적 노력이 결집된 수작이었다.

이 연작은 플랑드르 세밀화가인 게오르크 후프나겔의 수채화 초안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야곱 호프나겔(Jacob Hoefnagel)이 1592년 출판한 48점의 동판화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 후프나겔은 현미경적 시선으로 곤충의 날

개막이나 꽃잎의 질감을 포착했다.

각 판화 상단과 하단에는 도덕적 훈계, 성경 구절 혹은 고전 문학에서 인용한 라틴어 경구(Motto)가 적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자연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 신의 섭리와 도덕적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플레겔 역시 화려한 장식보다 사물의 본질적 형태와 빛의 반사를 명징하게 포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질서를 읽어내려 했다. 볼프강 뮐러는 플레겔이 작은 파리나 딱정벌레를 고귀한 은잔만큼이나 정교하게 그린 점을 두고, '피조물의 존엄성(Wurde der Kreatur)'이라 명명했다. 가장 작은 미물 속에도 하나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개신교적 창조 윤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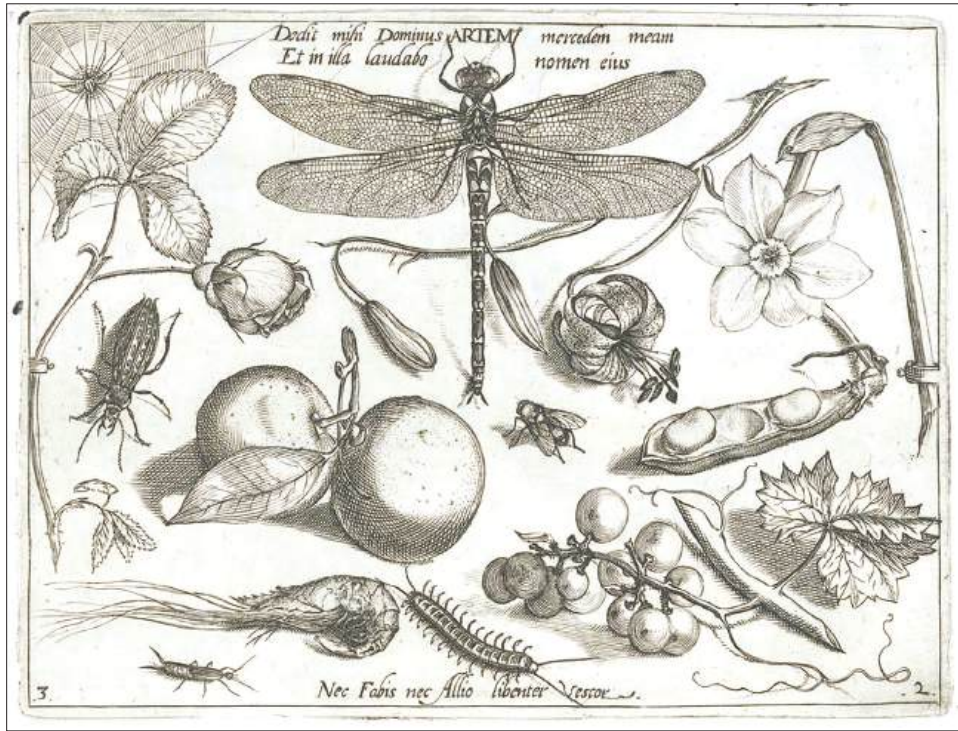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우리는 플레겔이 수용한 도상들을 통해, 삶의 유한함과 숙고라는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시들여가는 꽃과 부패해가는 과일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 도상들이다. 그가 전념했던 식탁 정물화는 일상의 풍요로움 이면에 숨겨진 피조물의 유한성을 성찰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화가로서의 활동으로 짐작해 볼 때, 플레겔은 프랑크푸르트를 정물화의 중심지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독일 정물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그의 두 아들인 프리드리히(1596/1597-1616)와 야코프(1602-1623) 뿐만 아니라 꽃 그림을 전문적으로 제작한 야코프 마렐(Jacob Marrell)도 있었다.

마렐은 다시 아브라함 미뇽(Abraham Mignon)을 교육하며 독일 정물화의 황금 계보를 이어갔다. 그의 유산은 18세기 유스투스 욱커(Justus Juncker) 등 프랑크푸르트 화가들에게까지 이어지며, 독일 예술사의 계보를 형성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야곱 호프나겔, 아르케티파(pl.18), 1592.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트럼프 대통령, 나이지리아 대통령에 기독교인 보호 지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테러리즘 대응 및 기독교 공동체 보호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7월 27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이 전격 공개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티누부 대통령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테러 집단 소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에 맞서 나이지리아 국민과 잔혹한 공격에 노출된 취약한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티누부 대통령의 굳건한 리더십이 정부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이 이 필수적인 안보 임무에 나이지리아와 함께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이 평화와 안보 수호 무고한 생명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양국이 정보 공유 군사 훈련 합동 대테러 작전 등을 포괄하는 2026년 국방 협력 로드맵에 따라 미국 나이지리아 안

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됐다.

2026년 국방 협력 로드맵 기반 미국 나이지리아 안보 공조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에서 현재 미군 특수작전부대가 현지에 전진 배치돼 나이지리아 군대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 격퇴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서한 발송은 그동안 팽팽했던 양국의 외교적 긴장 관계가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의회와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중부 농경 지대 등에서 벌어진 무장 단체의 기독교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나이지리아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해 왔다. 기독교 박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대상 폭력 사태 해결에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미 원조 등 특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트럼프 대통령과 티누부 대통령. ©ChatGPT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감을 묻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련의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가 기독교인을 겨냥한 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나이지리아 보안군은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반군 세력과 교전 중이며 현지 무슬림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 나이지리아

전략적 가치 및 테러 격퇴 성과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이 창출한 실질적 성과로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양국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정보 협력과 합동 군사 작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군 당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고위 사령관을 사살하는 등 가시적인 대테러 작전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의 지속

적인 공조가 서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한에서 양국이 연대하여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누부 대통령은 취임 이래 테러와 무장 폭력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안보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부 지역의 산발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다수의 반군 사살 및 인질 구출 극단주의 네트워크 붕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아프리카 최대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사헬 지대에서 연안으로 확장되는 이슬람 반군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말미에서 미국은 나이지리아와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공포와 증오를 퍼뜨리는 테러 세력 격퇴를 위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승연 기자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 튀르키예 감옥 침묵 속 십자가 사랑 증언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에서 23년간 사역하다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억울하게 투옥돼 2년의 옥고를 치른 미국인 선교사 앤드류 브런슨이 아시아 기독교 청년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는 선교적 헌신을 촉구했다고 7월 30일 보도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지난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얼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 셋째 날 저녁 집회 주강사로 강단에 올랐다. 2018년 석방되기까지 미국과 튀르키예 간 대형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던 그는 이날 4천여 명의 아시아 기독교 청년 리더들 앞에서 튀르키예 감옥 수감 당시 겪었던 깊은 영적 침묵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체포되기 20년 전인 2007년 기독교 복음화율이 극도로 낮은 튀르키예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님의 마



튀르키예에서 23년간 사역한 뒤 간첩 혐의로 투옥됐던 미국인 선교사 앤드루 브런슨©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음에 더 깊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당시의 기도가 자신을 감옥이라는 뜻밖의 고난으로 이끌었다고 회고한 그는 수감의 과정 역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치열한 선교적 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철저한 독방 생활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수감 환경이나 거짓 누명보다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독한 침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그를 지탱하게 한 원동력은 아내 노린의 헌신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함께 체포됐다가 2주 만에 석방된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주변의 권고를 거부하고 끝까지 튀르키

예에 남아 옥바라지를 자처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극도의 위험을 무릅썼다고 전하며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감 생활 중 그는 매일 두려움과 절망과 싸우며 자신의 뜻을 꺾는 훈련에 매진했다. 마음이 찢겨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 밤 40분 이상 찬양을 불렀으며 수감 2년 차부터는 좁은 감방에서 홀로 춤을 추며 신앙을 고백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후 재판을 위해 이감된 곳에서 거짓 증언에 시달리며 극한의 트라우마에 직면했던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게 두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 비로소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석방 이후 브런슨 선교사는 투옥 기간 겪었던 고통이 과거 자신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모욕과 배신 버림받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핍박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깊은 내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영적 갈망의 순간이 그림자고 털어놓았다. 브런슨 선교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얼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기독교 청년 리더들에게 선교의 길이 요구하는 무거운 대가를 깊이 헤아려 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20년 전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러볼 것을 권면하며 비록 그 길에 험난한 고난과 기독교 박해가 따를지라도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될 것이라는 선교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미경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내 나이 75세인데 10년 *어뉴이티*로 묶으면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너무 길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 놓은 돈이 백 오십만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는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 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문선영씨가 77세 손님을 상담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 지 걱정이 됩니다. 백오십만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두 애들이 받을 돈인데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이지요. 은행 이자 보다 높을 뿐 아니라, CD 보다 이자도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8% 정도 자라면 그야말로 못 자라다 이 정도, 혹은 더 자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여쭙는 자라는 동안 세금도 안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나이가 75세인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백오십만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 지 알수가 없는 돈이지요. 여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 사망하시면, 10년 후, 15년 후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로이지요. 1년 후 사망하신건, 5년 후 사망하신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남겨주게 되지요. 결국 언제 사망할 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 놔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 놔다고 혹시 일찍 죽을까 걱정할 일도 아니지요.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

다 물려주실 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 지 그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아주시는게 낫겠지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 지 모르니, 2년이나 3년 짜리 어뉴이티가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이나 3년 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아줘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계약하면 되지 않는가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 모를 일이지요. 혹시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 낱 짧은 것으로 묶어 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거냐, 오랜 기간 묶어 놓아서 사망 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거냐, 선생님 이제 어떤게 좋을 지 아시겠지요?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10년 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물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 함께 할 재정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시원하게 준비한

8월의 은퇴 세미나

스트레스 없이 시간적 여유를 즐기며 평생 노력해 쓰고도
통털케어 때조차도 흔들림 없는 나의 은퇴
미국 이민 1세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특권을 경험드리겠습니다
예약문의는
626-827-9599

라팔마

10
MON
10:30AM

은퇴의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의 모든 것
401K, IRA, TSP, 은행의 CD,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세리토스

13
THUR
6:30PM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연평균 4%씩 매달 찾아 쓰고, 집값 오르듯 내 돈도 오르고
11306 E 183 RD ST. CERRITOS, CA

엘에이

15
SAT
10:30AM

100세 은퇴와 통털케어
장수와 통털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통털을 동시에 해결
3435 WILSHIRE BLVD. 4FL, LOS ANGELES, CA

샌디에고

20
THUR
10:30AM

100세 은퇴와 통털케어
장수와 통털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통털을 동시에 해결
7825 ENGINEER RD. 201, SAN DIEGO, CA

라팔마

27
THUR
6:30PM

100세 은퇴와 통털케어
장수와 통털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통털을 동시에 해결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n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세계등대교회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213) 380-9931
<https://lighthousemissionchurch.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